

“민심악화 당 악영향 부담... 고심끝 결정”

■박지원 전격 검찰 출두 배경은

이희호 여사 “박 원내대표 진실 믿는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전격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은 악화하는 민심과 당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결백 입증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검찰 출두요구 거부, 방탄국회 및 필리버스터 논란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과 당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지는데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비겁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 대선 경선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부담이 있었다. 당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악화하는 민심은 그에게 가장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왔다.

더욱이 그의 검찰 출석 문제로 국회가 ‘올스톱’될 위기에 빠졌다. 민주당이 8월4일부터 임시국회 개회를 추진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여야간 일촉즉발의 경계대치 국면이 이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내곡동 사저 특검 등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현안이 문히게 됨으로써 12월 대선 정국

을 주도할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여기에 일부 동료 의원들의 출석 요구도 박 원내대표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한명숙 전 대표를 포함해 다수의 의원들이 검찰 출석에 반대했지만, 김동철·황주홍 의원 등은 당을 위해 박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 조사받을 것을 권유했다. 한 중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검찰 출두를 종용한 의원이 2명밖에 없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박 원내대표가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검찰 소환 불응으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여줬고 당의 결집력도 확인한 만큼 버티기의 정치적 효과를 충분히 봤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박 원내대표의 진실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인 이 여사는 이날 오후 비서관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최경환 공보실장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관’으로 불리는 박 원내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이 여사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두 사실을 미리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기자 jkpark@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오전엔 서울 카톡 본사·오후엔 충북 청주 방문

손학규 “손(孫)-안(安) 결합은 대선승리 필승조” 강조

민주 본경선 본격 레이스 돌입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5명의 후보가 본격적인 본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각자 기자회견과 편지 등을 통해 본경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며 민심잡기 행보에 속도를 냈다.

◇“내가 최종 후보”=문재인 후보는 지난 31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카카오톡 본사를 방문했으며 오후에는 충북 청주를 찾아 두꺼비 생태공원, 육거리 시장 등을 방문했다. 그는 또 이날 국민과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더욱 문제인답게 경쟁하고, 더욱 문제인답게 이기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학규)-안(철수) 결합은 정권교체, 대선 승리의 필승조로 최고의 시너지를 불러올 결합”이라며 “손학규의 준비된

실력과 안철수의 매력에 더하고, 손학규의 안정감과 안철수의 참신함이 더해졌을 때 우리 민주세력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금융 개혁 ▲언론 개혁을 주요 5대 개혁 과제에 있는 카카오톡 본사를 방문했으며 오후에는 충북 청주를 찾아 두꺼비 생태공원, 육거리 시장 등을 방문했다. 그는 또 이날 국민과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더욱 문제인답게 경쟁하고, 더욱 문제인답게 이기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도 서울 정동 성공회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경제민주화 실현과 경제안보 시스템 구축, 경제적 통일 실현 등 3대 과제를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관전 포인트=본선도 ‘문재인 대비(非) 문재인’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손·김 후보 등은 참여정부 실패론 등을 거론하며 문 후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부의 분수령은 제주와 광주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문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한다면 밴드왜건 효과가 확산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문재인 대세론이 무너지면서 초박빙의 승부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표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결국 광주경선 결과가 최종 결과를 말해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주자별 합동연설회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후보들이 어떻게 연대하는지가 결선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기자 jkpark@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컷오프 통과 박준영 “감사...지사직 더 고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31일 “뒤늦게 경선에 합류했음에도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고민하다 뒤늦게 경선에 뛰어 들어 선거운동은 불과 10여 일에 불과했음에도 컷

오프를 통과한 것은 어찌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는 “특정 계파도, 당 안팎의 조직도 없는 가운데 컷오프를 통과한 것은 시·도민과 당원들의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됐기 때문”이라며 “개인적 욕심이 아니고 민주당의 노선, 특정 세력의 독점적, 실효력없는 공약 등에 반발해 출마한 만큼 (본 경선도)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후보 중도 사퇴나 도지사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컷오프 통과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는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고민해 보겠다는 뜻만 밝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필수기자 bungy@

박근혜, 安 ‘작심 비판’...정면 대결 가나

안 원장 지지율 제동 주목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비판하면서 박근혜-안철수 간 정면 대결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안 원장이 2003년 보신회계 등 혐의로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명운동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자 박 전 위원장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31일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안 원장의 ‘최태원 구명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면서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안 원장이 경제사범이었던 재벌 총수의 구명운동에 나선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한 안 원장을 비판한 것은 사실상이면이 처음이다.

박 전 위원장의 작심 발언엔 최근 급상승 중인 안 원장의 지지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내에서도 검증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캠프 인사는 “안철수 약점 찾기”에 진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캠프 일각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

황우여 “60세 정년 법적 의무화 추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31일 KBS1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시니어 세대들의 노후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인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 65세, 2020년엔 70세까지 늘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년 60세 연장 도입시 긍정적 영향으로 ▲숙련근로자가 계속 일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 ▲중·고령 세대에겐 일할 기회 제공 ▲연기금 재정의 안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정년 연장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새누리, 매머드급 대선공약 개발단 발족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100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대선공약 개발단을 꾸린다.

당 정책위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기존의 대선공약 기획단을 ‘2012 대선공약 개발단-5천만 행복 본부’로 전환하고 대선공약 다음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대선공약 개발단은 ▲청년희망 공약단 ▲엄마·아빠 공약단 ▲어르신 공약단 ▲여성당단 공약단 ▲아웃사

촌 공약단 ▲경제키움 공약단 ▲희망나눔 공약단 ▲지역발전 공약단 ▲미래도약 공약단 ▲평화지킴 공약단 등 10개 공약단으로 구성된다. 한 공약단마다 소속 의원은 최대 10명, 원외 당협위원장은 5명씩을 배치해 많은 경우 의원 100명과 당협위원장 50명이 참여하게 된다. 개발단은 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2일 인선을 마무리한 뒤 이달 초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종형기자 golee@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5기)	광주교육대학교(6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2. 9. 7(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2. 9. 8(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 2012. 9. 3(월) 19:00 (중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2. 9. 6(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2. 9. 8(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2. 7. 26(목)~9. 8(토)	2012. 7. 26(목)~9. 8(토)
수업기간	2012. 9. 7(금)~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2. 9. 6(목)~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요일·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특)급)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특)급)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1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lly.kwu.ac.kr	·문 의: 0621520-4243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함평다이내스티CC
신입 및 경력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향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1.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주부사원(만35세이하)
- 3.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경력자 면접 후 결정
- 4.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기숙사 제공, 1일 3식 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7. 접수처**
- 주 소: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식음료팀 이상욱 팀장
- 전 화: 061-320-7799
- 이메일: guy0818@hanmail.net

경매투자 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특수물건과 NPL 부실채권만 취급
 → 교육비 / 임차활동비등 회비있음
 → 수료중 단독 / 공동투자 가능
 → 수료후 평생 무료상담 혜택

투자자모심(이사대우)

1. 자본금 5억원이상 가지신분
2. 경매 낙찰물건에 투자하실 분
3. 가등기 / 근저당으로 법적보장
4. 개인사무실 / 활동비등 제공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